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4-7)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밀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지난 호에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지요. 그 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1.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비록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였다 해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두려운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악을 싸워 버리면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힘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에서 떠나 점점 모이지 않고, 기도를 쉬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심히 내는 것이며, 세상 죄를 벗어 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서 점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루기까지는 항상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므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시험에 들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겼던 담을 헐

어야 다시금 총만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이로써 처음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총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남녀가 만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부부 사이가 점점 변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던 그 마음만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부부 사이가 변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리 없지요.

이는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성도와 결려서 시험에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과 부딪치거나 설교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 의심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 나가던 비진리들을 다시 취한 데 있습니다. 비록 성령 총만하게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다시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요일 2:15-16).

처음 사랑의 총만함 가운데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갔던 사람이 1년, 2년, 수년을 보내면서 더 이상 영적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연단이 거듭되면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힘들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틈틈이 납니다. 또 세상의 육적인 것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잠시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뿐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상의 풍조를 쫓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며 회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관·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